

우리나라 近代文藝誌에 나타난 日本文學의 忌避에 대한 考察

오 영 진

目 次

〈序論〉	① 其他의 文藝誌들
〈本論〉	(4) 「海外文學」誌 以後
1. 우리나라 近代期의 時代的 区分	(5) 1930年代를 前後한 詩誌들
(1) 甲午更張부터 「少年」까지	(6) 1937年代의 概況
(2) 「少年」에서 「泰西文藝新報」까지	① 葬王의 前兆들
① 「少年」과 「青春」誌	② 「文章」誌의 抗日性
② 「泰西文藝新報」	③ 1941年 以後
(3) 「創造」 및 그 以後	〈結論〉
① 「創造」	우리말 요약
② 「癡墟」	영문 요약
③ 「開闢」誌	

序 論

近代化라는 概念이 西洋文物의 移入을 意味할 때 甲午更張을 起點으로 한 우리 나라의 近代化 作業은 실은 좋은 우리의 이웃에 있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西洋文物을 받아 들인 日本에 影響되 있다는 것은 既知의 事實이고 現時點으로서는 한갓 歷史의 史實로서 淡淡하게 받아 들일 일에 不遇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西歐文明을 受容함에 있어 西歐 諸國과 直交를 하지 못하고 日本이

라는 中間 媒体를 통해서 다소곳 日本化된 西歐文物을 받아 들었다 손 치더라도 當時의 賢明한 우리의 祖上들이 内外의 어찌할 수 없는 惡條件 속에서도 日本的인 것을 外面하고 때로는 無視하면서 어떻게 하여 우리 나라의 近代化를 推進하였는가 하는 問題는 日本語文學을 專攻하고 그 教育에 從事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마땅히 究明하여야 할 課題이고 또 看過해 버려서는 안될 重要한 問題이다.

日本の 影響下에서 解放된지도 어언 30餘年, 그러면서도 우리의 周邇에서 아직도 日本化된 西歐文明의 殘滓를 散見할 때, 우리는 우리의 先輩 文人들이 鉄拳 植民地下の 隸屬된 政治的·文化的 狀況에서 日本化되지 않은 純粹 西歐先進文明을 받아 들이기에 어떤 術기와 勇氣를 가졌었는가를 배워 익히고 繼承해서 앞으로의 萬里餘程의 祖國 近代化 作業에 教訓삼아야 할 것으로 믿는다.

오늘 날 흔히 우리의 識·學者들 間에는 우리 나라의 近代化 過程을 論議함에 있어 「日本の影響」을 宜當然한 事實로 받아 들일 뿐, 그 裏面の 숨은 刻苦와 意義를 看過해 버리는 愚가 있어 그의 是正을 爲해 本稿를 起草했으며, 또한 그것이 本論의 目的과 意義가 됨을 闡明한다.

本 論

1. 우리나라 近代期の 時代的 區分

既述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近代化의 嚆矢를 甲午更張(1894)으로 보고 現代에의 발돋움을 解放(1945)으로 볼 때 공교롭게도 우리 나라의 近代化 期間은 日本을 빼어 놓을 수 없는 密着된 期間임을 알 수 있다. 이 50年の 期間에 우리의 先輩 文人들은 그 先導의 役割로서 여러 가지의 文芸活動을 展開하였으니 各種 文芸誌의 發刊, 文芸活動등을 그 例로 들 수 있다. 事實 우리나라 近代化 運動의 精華라고 볼 수 있는 이들 文芸誌의 浮沈은 그 自体가 하나의 歷史的 意義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歷史 그 自体이기 때문에 이들 文芸誌의 內容을 分析 研究해 본다는 것은 여간 재미 있는 일이 아니며 또한 價值있는 일이다. 따라서 筆者는 이들 文芸誌의 浮沈을 起點으로 삼아 우리 나라 近代期の 時期를 区分하고 그 特性을 概別해 보겠다.

研究의 對象 時期는 1894年の 甲午更張期부터 1941年の 2次大戰 勃發前 까지이고 對象書籍은 「少年」「青年」을 爲始해서 「創造」「廢墟」「海外文學」等 主로 純文芸誌에 局限하였으며 時期를 1941年 까지로 制限한 것은 1941年の 2次大戰을 分岐點으로 해서 1945年の 終戰時까지 日帝의 우리 文化 抹殺政策은 그 極에 達하여, 內鮮一體 皇國臣民化 政策으로 良識을 지닌 우리의 文人들은 大槪가 붓을 꺾었고, 內容과 活字도 戰爭讚揚에 日本文字體여서 이 時期를 그 이

前의 多少나마 自由가 許容되었던 文化政策時期와 到底히 同一視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941年부터 1945年까지의 狀況은 追後 別途로 取扱해서 研究 對象으로 삼고자 한다.

(1) 甲午更張부터 「少年」까지

近代의 胚芽期로 일컬어질 수 있는 이 時期의 文學作品의 大宗은 唱歌와 新小說로 代表되어진 다. 傳統 民謠調의 韻律을 밟으면서 字數의 制限에서 解放된 初期의 唱歌歌辭가 차차 日本의 傳統 韻律인 7·5調로 바뀌면서 內容面에서도 進一步 해 가지만 그가 지니는 意味는 開化와 自主獨立·科學性·因襲과 迷信打破를 부르짖는 것들이었다.

新小說 部門도 마찬가지다. 重訳¹⁾ 翻案²⁾의 問題야 있지만 新小說中의 많은 것들은 歐美 偉人傳이나 社會處世書 같은 內容物이 主宗을 이루었으며 純粹文芸物도 開化思想을 鼓吹하는 啓蒙物이었다. 따라서 當時의 우리 文人들이 日本語 以外의 外國語를 알지 못한 까닭으로 不得已 西歐 文物의 輸入에 있어서 日本版 翻譯物을 重訳했거나 翻案을 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形式的인 것이었을뿐 內容에 있어서는 주로 日本의 侵略을 警戒하고 이 나라의 自主獨立을 呼籲하는 聲句들이었으며 特히 詩歌에 있어서는 青年學徒들을 일깨워 扶國 扶民하자는 內容들이었다.

(2) 「少年」에서 「泰西文芸新報」까지

1908年의 「少年」誌로 부터 1919年 「創造」出刊 前까지를 우리나라 新文學의 創生期로 보고 이 期間의 主要 文芸誌에 나타난 日本文學의 影響에 對해서 살펴 보자.

① 「少年」과 「青春」誌

古堂 崔南善에 依해서 創刊된 文芸誌 「少年」이 우리나라 近代文學의 實際的인 嚆矢 이라는 데는 贊言을 要치 않는다. 日本에 留學中이었던 17歲의 古堂은 뜻하는 바 있어 學業을 中斷하고 急抛 揚國, 同誌를 主幹 發行하였는데 當時의 우리나라 現象은 昏迷를 거듭한 가운데에도 日本을 媒介로 해서 다소곳 日本化된 歐美文明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處地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刊行된 「少年」임에도 既述한대로 重訳·重重訳의 問題는 있을지 모르지만 同誌 全號를 통해서 日本의 純粹 文芸物을 紹介한 것은 단 한 편도 없고 다만 다음에 例示한 日本人의 生活觀念 處世要領·格言等을 若干 掲載하였을 뿐이다. 卽 同誌 第二年 第一卷(通卷 3號)에 이르러서야 「日本人의 俗忌」라는 題下에 31가지의 生活俗忌觀念을 실고 우리의 그것과 比較를 勸하였 으니 그 內容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日本人의 俗忌

(수짚에는 東京近處에 行하난것을 掲載함□ 웃머께 우리나라와 갓흔것이 만흔가 보아라)

1), 2), 우리 나라에서 新小說로 일컬어지는 거의 大槪는 이에 屬한다.

- 손가락 거죽에 거스럼이가 이러나는 者는 不孝子라.
- 못생긴 놈이 밭이 크다.
- 손바닥이 恒常 더운者는 富者라
- 손톱을 붙에 너호면 미친다
- 盜賊놈이 동우해 대야를 덥히두면 그집사람이 잠을 깨우지 아니한다.
- 제채기를 하면 남이 제 이익을 하난 것이다.³⁾

以上과 같은 日本의 俗忌는 우리 俗忌와 너무나도 같은 곳이 많아 比較 研究해 볼 價值가 鑑定되는데 六堂도 이러한 點에 着眼하여 이 欄을 開設하였을 뿐 그 以上の 어떤 意義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다음 号인 第二年 第二卷(通卷 4号)에는 日本의 著名한 近代文學思想家인 福沢諭吉⁴⁾의 修身要領을 「現代少年의 新呼歌」이란 副題를 붙여 29가지로 나누어 掲載하였으니 그 例는 다음과 같다.

八. 男尊女卑는 野蠻의 陋習이라 文明한 男女는 同等同位로 相敬相愛하야 各其 獨立自尊을 保存할지니라⁵⁾

위의 修身要領은 시리-즈로 다음 号에는 「와싱톤의 座右銘」 그 다음 号에는 「프랭클린 座右銘」 등으로 繼續되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 欄의 掲載은 日本文學의 轉載가 아닌 當時의 日本의 西歐通 第一人者인 福沢諭吉를 통해서 西歐의 開化思想을 播教하기 爲한 것이었다. 이 外에 同誌에 掲載된 日本關係의 글이란 同 七卷의 「格言六十三集」欄中 世界 各國의 格言을 紹介하는 가운데 日本의 格言 4개가 「日本四則」이라는 小題下에 原文을 곁들여 실려 있을 뿐이다.

「青春」誌에 이르러 日本關係 忌避傾向은 더욱 두드러진다. 同誌 14号에 中村敦子 博士의 「自助論本序」가 漢文体로 2페이지 나와 있으며 其外로는 우리 文人들의 日本 記行文 旅行談이 三篇 있을 뿐이다. 反面에 歌美 諸國의 偉人傳 文芸思潮等은 매우 소상하게 紹介함으로써 崔南善 李光洙 諸氏에 依해서 主幹된 「少年」「青春」兩誌의 反日性과 國民啓蒙精神을 엿볼 수가 있다.

② 「泰西文芸新報」

「泰西文芸新報」는 그 題名이 뜻하는 바와 같이 泰西 即 歌美先進國의 文芸를 紹介하는데 그 創刊의 趣意가 있었으므로 비록 泰西의 文物을 紹介하는데 있어 前者와 같이 日本出版物을 重訳

3) 「少年」第二年 第一卷(通卷第三号) 隆熙三年 1月1日發行, P.19.

4) 1834~1901. 美·西歐見聞, 啓蒙思想家, 「西洋事情」「世界國尽」等

5) 同誌通卷四号 隆熙三年二月一日刊 P.6.

重重厭한 問題는 남지만 아예 처음부터 日本的인 것은 장그리 無視해 버렸다. 「泰西文芸新報」를 起點으로 해서 「創造」等誌로 이어지는 一聯의 岸曙 金鐘의 西歌詩 翻譯은 後日 「金星」誌의 梁柱東 諸氏와 개동·배지동 翻譯是非論으로 展開되지만 여기에 그 眞否는 措処하고서라도 當時 純文芸 中心으로 1910年代의 後半期의 空白을 메꾸어 온 同誌에 日本物을 全혀 揭載하지 아니한 것은 가상타 아니 할 수 없다.

(3) 「創造」 및 그 以後

1920年代 初盤의 우리 나라 文壇은 여러 가지 面에서 記錄할만한 때였다. 文芸思潮의 混流에 따른 各種 文芸物의 浮沈과 三一運動을 契機로 한 日帝의 宥和文化政策의 餘波로 民族意識이 어느 때 보다 高揚되었으며 文化的인 百花齊放 百家齊鳴의 時代였다.

內容의으로는 「少年」誌 以來 李光洙에 依해서 代表되었던 啓蒙主義文學의 樣相을 새로운 文學形態인 寫實主義傾向으로 變換시켰으며 國語體 文章을 確立시키기도 하였다. 이 時期에 있었던 많은 文芸誌 속에 日本的인 것이 얼마나 있는가를 概別해 보기로 하자.

① 「創造」

1919年 2月, 金東仁에 依해서 創刊된 우리 나라 最初의 純文芸誌 「創造」는 여러 가지 面에서 그 意義가 크지만 特別히 當時의 日本詩壇을 風摩했던 象徵主義作家들의 詩를 翻譯 紹介한 우리 나라 最初의 文芸誌라는메도 한 가닥의 意義가 있다. 同誌의 1~2號에는 「日本近代詩抄」라는 題下에 別꽃⁴⁾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序說과 함께 1號에는 浪漫主義를 2號에는 象徵主義를 紹介하고 있다.

日本近代詩抄 (I)

- 序說: 最近 50年동안, 西歐文明의 影響을 바다서 내려난, 새로운 日本의 文芸를 注意하며 할 때는 먼저는 新體詩, 뒤에는 長詩라고 畧하는 形式으로 成立된 近代詩를 記할 수 있다. (中略)
- 보는사람 따라서 여러가지로 区分할 수는 이스나, 지금 대강 明治, 及大正의 詩壇을 난호면 前半은 浪漫主義(浪漫主義)時代요 後半은 象征主義(象徵主義)時代라 할 수 있다. (中略)
- 지금 이三段에 난호아 各作家를 中心잡아 簡單히 紹介코자하는거슨, 方寸道선에서도 새로 운노래가 내려 내려는때에 決코 뜻업슨일은 아닐뜻하다.
- 浪漫主義時代: (以下略)

6) 주요한

島崎藤村 : 오키쿠. 비소매. 고모로의 넷 城가에서
土井晩翠 : 丞相 (星落秩風五文原의 一節)
河井醉茗 : 사쿠라소오
橫瀬夜雨 : 오사이
平木白屋 : 어둠속에
蒲田泣菫 : 샘⁷⁾ (各詩內容略)

以上이 1号에 収録된 것이고 同誌 2号에는

□ 로 一 단씩 · 샘물리슴 (浪漫的, 象徵主義) : (以下 解説略)

浦原有明 : 自來 · 靈의 해의 蝕
岩野泡鳴 : 말업손들, 열쇠들달라, 달과고양이
三木露風 : 西月, 마음속, 동금 나무미데, 불
北原白秩 : 邪宗門秘曲, 미친거리, 불을불라, 하늘에셋빨간, 어릴적꿈, 류리베는이, 芥子꽃,
(各詩內容省略)⁸⁾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創造」誌에는 1·2号를 通해 一聯의 日本詩를 紹介하였는데 同誌의 日本詩의 紹介는 日本文芸物의 紹介에 그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1号의 序說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는 當時 아직도 생소했던 世界의 文學思潮인 浪漫主義와 象徵主義를 日本詩壇을 借用해서 紹介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同計劃을 当初 三回로 計劃하였다가 二回로 끝내 버린 것과 그 以後의 同誌 9号가 發刊되는동안 日本的인 것은 이 以外의 어떤 것도 取扱하지 않았다는 것은 三一運動 以後의 民族感情을 反映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② 「廢墟」

1920年에 創刊된 「廢墟」誌 創刊号에는 黃錫禹의 「日本詩壇의 二大傾向」이라는 主題와 一附 寫象主義-라는 副題下에 象徵主義詩와 함께 우리 나라에서는 最初로 民衆詩歌 運動과 그 흐름을 掲載하였다.

日本詩壇의 主潮는 一言으로 말하면 勿論 口語詩 運動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主潮만에는 三木露風, 日夏耿之助를 비롯하여 柳沢 健, 西条八十·北村初雄의 여러 靑年詩人들의 손에 依하여

7) 同誌 1号, P.76 ~ 80. (1919. 2月刊)

8) 同誌 2号, P.43 ~ 50. (1919. 3月刊)

이 引導되는 象徵主義 運動과 또는 此에 反抗하여 나타난 福田正夫・富田碎花・加藤一夫・自鳥省吾 等の 民衆詩歌運動의 두 큰 傾向이 있다. (後略)⁹⁾

라는 前提와 함께

- 一. 日本象徵主義의 詩歌에 就하여
- 一. 広意의 象徵主義
- 一. 知的 象徵主義
- 一. 狹意의 象徵主義¹⁰⁾

라는 小題下의 解説을 곁들고 다음과 같은 주로 象徵主義 詩人들의 象徵詩를 紹介하였다.

三木露風：解雪
蒲原有明：赤鳥
日夏耿之助：忍黙
北原白秋：街燈
柳沢 健：歎息
四條八十：秋
萩原朔太郎：天上蟻死：永劫의 魂¹¹⁾

「創造」誌의 試圖가 浪漫主義와 象徵主義, 本「廢墟」誌의 試圖는 象徵主義와 民衆詩運動의 紹介에 그 目的이 있었다. 事實 日本에서의 上記 三個 詩風의 흐름은 1890年代를 起點으로 해서 約 15年을 間隔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세 傾向이 1920年代 初盤에 一時에 流入된 傾向이 있다. 또한 「廢墟」誌에서 當時의 日本詩壇의 二大傾向이었던 象徵主義詩와 民衆詩를 紹介하면서 民衆詩의 例는 하나도 들지 않고 9首 全部를 象徵詩의 紹介에 그쳤다는 것은 這間의 우리 나라 文人들의 詩向을 斟酌할 수 있으며 이러한 影響으로 因한 우리 나라 詩壇의 그 後의 傾向을 想定할 수가 있다.

① 「開闢」誌

日帝 36年間に 發行된 雜誌 700餘種 가운데 言論雜誌로 獨步의 地位를 占한 「開闢」은 우선 무엇보다도 그 長壽性에서 부터 第一義를 賦與할만 하다. 1920年 6月 25日 創刊되어 1926年

9), 10), 11), 「廢墟」創刊号 1920, 7月刊, P.76 ~ 94.

8月の紙齡 72号로 強制 廢刊되기 까지 同誌가 우리 나라의 文化 藝術에 끼친 影響이야 至大하다. 排他的인 天道敎에 依해서 運營되었고, 또 當時의 左傾作家인 李箕永 金基鎮等을 排出한 溫床誌였던 關係로 同誌의 排日性은 또한 特記할만한 것이었다. 中期까지에는 日本的인 것은 反日的 記事外에는 一切 거들며 보지도 않았던 同誌가 多少나마 日本的인 것을 取扱하게 된 것은 1925年에 들어서서의 일이며 그도 또한 政治的인 것으로서는 日本的 無産政党的 紹介¹²⁾ 라던지 「日本政局縱橫觀」¹³⁾ (德月山人) 등이며 文化的으로는 同誌 通卷 69号¹⁴⁾ 文芸所感에 「朝鮮半島가産出한文芸와文芸家」라는 題下의 日本的 아나키스트인 栗原一男의 評論과 通卷 71号에 亦是 日本的 左傾中堅作家인 葉山嘉樹의 「壳淫婦」라는 小説과 同流詩人인 相川後孝의 「나의詩」 林美美子の 「孤寂한 醉女」라는 詩가 各 一篇씩 실려 있을 뿐이다. 그러나 上記 作家들은 當時 日本에서도 反政府主義者로 烙印 찍힌 作家들이었고 그 內容 亦是 當時의 日本 社會의 恥部를 파헤친 作品으로 「開闢」이 日本文學의 오랜 拒否 끝에 末期에 가서 이런 作品을 掲載하였다는 것은 可히 그 底意를 斟酌하고도 남을 일이다. 同号에는 後半部를 「現代海外文學紹介号」로 하여 評論 部門에 獨·露와 더불어 日本人 林房雄의 「科學과 藝術」을 실었으며 詩部門에 露·獨·英 仏·伊·美·中國의 詩와 함께 前記 두 日本詩와 小説部門에 歐美 諸國의 小説과 더불어 葉山嘉樹의 「壳淫婦」를 실었다. 이러한 同誌의 特徵은 內鮮一體를 부르짖으며 地國色까지 同色으로 칠했던 日本的 軍國主義 爲政者들에 對한 無言의 反抗 即 日本은 어디까지나 外國이지 우리와 같지 않다는 精神을 보여 준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其他의 文芸誌들

1920年代 初盤에 浮沈한 其他의 文芸誌들 속에는 日本적인 것에 紙面을 割愛한 文芸誌가 거의 없다. 거의가 紙齡 몇号的 短命으로 끝난 탓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3·1運動 以後의 高揚된 民族主義 思想과 反日感情이 그 主된 原因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薔薇村」(1921), 「白潮」(1922), 「靈台」(1924), 「金星」(1923), 「朝鮮文壇」(1924), 以外에 「東光」, 「朝鮮之光」, 「文芸時代」 등이 이 時期의 純粹文芸誌 乃至는 啓蒙誌들이었는데 이들 中에는 「創造」나 「魔鏡」에서 보인 바와 같은 程度의 日本文壇을 통한 世界文芸 思潮의 把握을 爲한 試圖마저도 一切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當時의 우리 나라 文人들이 日本的 文學 自体를 輸入하려는 試圖는 取하지 아니하였다손 치더라도 日本書籍을 통한 西歐文明에의 接近마저 試圖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認定하여야 할 것이다. 이 問題는 追後 韓·日比較文學을 志向하는 사람들의 重要한 課題로 남겨 두면서 여기에서는 그 軌를 달리 고쳐 한다.

12) 「새로 날어나는 日本的 無産政党的」 小春 通卷 64号

13) Ibid., 通卷 68号

14) 大正 15年 (1927) 5月 1日 発行 5月号

(4) 「海外文學」誌 以後

1926年 12月 在日本留學生들이 東京에 모여 「海外文學硏究會」를 發足하고, 다음 해 新年號로 發刊한 「海外文學」誌가 우리 나라 近代文學의 方向을 轉換시켰다는 것은 既知의 事實이다. 同誌가 지니는 意義의 하나는 當時 洪水처럼 밀려 드는 歐美의 文學思潮를 日語版에 依한 重譯이 아닌, 未熟하나마, 우리 나라 留學生 스스로의 손으로 原本譯하였다는데에 意義가 있다. 同誌는 前後 2號로 極히 短命하였는데 1號에는 仏・獨・露・美等 歐美의 作品을 들었을 뿐 日本關係의 記事나 文芸物은 하나도 실지 않았는데, 2號에 이르르면 威逸敎의 「明治文學의 史的考察」과 異河澗의 「愛麗九篇(英・仏・米・日)」속에 日本의 西條八十의 「回想」이라는 詩一篇이 紹介되어 있음을 본다.

그러나 威逸敎의 「明治文學의 史的考察」은 다음과 같은 前文 解説에서 그 掲載의 意義를 찾아 볼 수 있다.

오늘 우리 社會의 知識程度는 그차가 꽤 甚한것 같다. 아는이(一般知識階級을 말한다)며 알고 모르는이(一般無識階級을 말한다)는 아주 모른다. 나는 바튼밋친으로나마 日本文學을 우리 社會에 紹介코자할때에 이늦김에 더욱 切實해진다. (中略)

時間은 훌터 三四年의 距離를 짓고 말았스나 文學運動史上的 「이-폭크」는 저들의 그때와 우리의 오늘이 그사이에엿던 類似를 가진 듯하다. 이때에 잇어 남들이 成功한 그 運動의 歷史를 차자봄 이 他山之石이라고까지지는 못할지라도 엿지 無用한 일이라곤들 하리오. (以下 略)¹⁵⁾

以上の 前文 解説과 함께 本論에는

胎生期 概觀

- 一. 序說
- 二. 國語及國學論의 勃興

等이 실려 있고 끝에 [統]이라고 한 것을 보면 連載를 펴했던 것 같으나 同誌의 中斷에 依하여 継続되지 못하였다.

異河澗의 「愛麗九篇」에는 스키븐슨의 鎮魂曲(英)・死都(알-베르 사명・仏)를 爲始해서 트리스탕・콜비에르(仏) J・골즈워디(英) 등의 詩와 더불어 日本의 当代 一流詩인이었던 西條八十의 「回想」이 翻譯 紹介되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5) 同誌二號, P.12 ~ 14. 1927, 7. 4日 發行

回 想 (日一西条八十作)

南嶽仙蘭西

山속적은마을에

나는잇섯다

그날, 그해너름.

X

나는석달을

우리故國사람의

그림은말소래를

듣지못하다

X

너무도

孤寂해지머는

다못혼자서

슬픔과말하여

X

내목소리가

울너오는反響을

그나마들음으로

깃버헛노라

X

仙蘭西南便

山속적은마을에

외로웠섯든

그날, 그해너름.¹⁶⁾

以上「海外文学」誌에 실린 두 種類의 日本的인 것은 前者가 같은 文化圈 안에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先進文化의 土着化에 成功한 日本의 例를 들어 우리의 文化物勃興할려는데 그 目的이 있었으며 後者는 비록 이 詩의 原作者가 日本人이기는 하였지만 멀리 異國의 하늘 아래서 故鄉을

16) 同誌二号, P.33 ~ 34.

그리는 哀切함이 어찌면 나라를 잃고 日本의 하늘 아래서 彷徨하는 訳者의 마음에 가장 잘 投影된 作品으로 여겨, 創作欄이 없는 同誌에 借用된 것으로 믿어진다. 訳者가 愛讀詩로서 選定한 其他 八篇의 歐美詩도 한결같이 哀調的인 内容의 것이었다.

(5) 1930年代를 前後한 詩誌들

우리 나라 近代期에 있어 詩專門誌로서의 嚆矢는 1921年 5月의 「薔薇村」을 들 수 있다. 以後 1941年 日本軍閥의 斷末魔의 狂舞가 始作되기 까지 우리나라에는 많은 詩誌가 浮沈 点滅하였는데 그 속에는 몇몇 西歐詩의 翻譯紹介外에는 단 한 篇의 日本詩의 紹介나 日本詩壇의 解説 같은 것 마저 없었다. 그 大綱을 瞥見하면 다음과 같다.

「薔薇村」: 1921年 5日. 創刊号문, 日本詩 文學에 對한 記事 없음

「金星」: 1923.5 ~ 1924.3. 全三卷, 「近代仏蘭西詩抄」를 梁柱東이 訳出했고 日本文芸物은 全無

「新詩壇」: 1928.8. 創刊号문, 外國詩의 紹介 없음. 日本것은 勿論.

「朝鮮詩壇」: 1928.11 ~ 1934.9. 全8卷, 日本詩 및 其他 記事 全無

「詩文學」: 1930.3 ~ 1931.3. 全三卷 鄭寅普 吳河濶등이 中國의 木蘭詩나 仏蘭西의 풀·포르시 詩 등을 翻譯 紹介했으나 日本詩는 한 篇도 없음

「詩苑」: 1935.2 ~ 1935.12. 全五卷, 「조이스」의 詩 二篇을 吳河濶이, 니-체의 「孤獨」을 曹希醇이, 等 西歐詩의 紹介는 있으나 日本詩의 紹介는 없음

「浪漫」: 1935.8. 創刊号문, 海外詩 紹介 없음

「詩人部落」: 1936.11 ~ 1937.1. 全二卷, 日本詩 없음

「詩人春秋」: 1937.6 ~ 1938.1. 全二號, 日本詩 없음

「子午線」: 1937.12. 創刊号문, 日本詩 文芸物 全無

「鑛」: 1938.6 ~ 1938.12. 全四卷, 日本詩 其他 없음

「詩學」: 1939.3 ~ 1939.10. 全四號, 吳河濶등이 린제이의 「길손」等 西歐詩의 紹介는 있으나 日本詩나 文芸의 紹介는 없음

「詩林」: 1939.3. 創刊号문, 日本詩의 紹介 없음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當時의 詩誌들은 우선 短命이라는에서 우리는 這間의 우리 詩人들의 經濟的인 苦衷과 日帝의 彈壓을 알 수 있을 뿐더러, 上擧한 많은 詩誌中 단 한篇의 日本詩도 掲載하지 않았다는에서 우리 先輩 文人들의 抗日精神과 氣魄을 斟酌할 수가 있을 것이다.

(6) 1937 年代의 概況

1937 年을 한 時代로 區劃한 것은 바로 이 해가 世界 第二次大戰의 前兆인 中日戰爭(支那事變이라고도함)의 勃發 해이며, 이 戰爭을 奇貨로 해서 3·1 運動以後 多少 緩和되었던 우리 나라에 對한 日帝의 文化政策이 內鮮一體 聖戰完徹이라는 美名아래 새로운 毒手를 펼치기 始作한 해이기 때문이다. 많은 文人들이 붓을 꺾고 隱遁하였으며 그렇잖아도 陰으로 陽으로 조들리던 良心의 民族誌나 文芸誌들은 혹은 自進廢刊으로, 혹은 強制廢刊으로 門을 닫고 말았으며 그나마 끈기 있게 버티어가던 몇몇 文芸誌들도 어느 사이엔가 漸漸 빛이 바래어 가는 悲運을 맞게 되었다.

그럼 다음에 이 時期의 몇몇 主要 文芸誌上에 나타난 日本文芸物의 流入과 日本化에 對한 傾向을 살펴 보자.

① 彈圧의 前兆들

1938 年 1 月 1 日 發行의 「三千里文學」 創刊號에는 「愛國金子塔」이라는 題下에 副題를 달고 ‘愛國機의 獻納’ 과, ‘將兵을 올린 女學生의 便紙’¹⁷⁾ 라는 것을 실고 마치 이러한 運動이 우리 나라 스스로의 自發運動인 것처럼 記事化하였다. 이른바 支那事變으로 일컬어지는 日軍團의 大陸侵略을 爲한 造作劇으로 始作된 이 戰爭의 餘波는 當時까지만해도 어느 程度 限定된 範圍內에서의 自由를 누려 왔던 우리 나라 文芸界에 致命的인 衝擊을 齊來케 하였으니, 上記한 經濟的인 収奪外에도 文化的으로는 우리말 使用禁止 各種 文芸誌들의 倭色化 強壓措置등을 들 수 있다. 그러한 日帝의 政策的一環으로서 우리의 文芸誌에 그들의 侵略戰爭 讚揚記事를 掲載케 한 것이 辭酌되나 그러나 同誌 創刊號에는 이 記事以外의 어떤 日本的인 文芸物도 載을 수 없다.

同年 10 月 1 日에 發行된 「博文」 第一輯에는 그 前의 다른 文芸誌에서는 볼 수 없었던 所謂 「皇國臣民之誓詞」가 倭文章으로 첫장에 나와 있고, 以後 同時代에 發刊된 「映圖演劇」이나 「作品」誌등에서도 이 文章을 볼 수 있으니 日帝의 文化的인 毒手는 可히 이 때부터 加重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時期를 통해서 特記할만한 것은 이미 이 때부터 戰爭文學이라는, 우리 나라에서는 極히 生疎한 새로운 장르아래 한 두 사람의 戰爭讚揚 變節文人이 나타나기 始作한 것이다. 林學洙의 「戰線詩集」이 그것이고 金龜濟의 「亞細亞詩集」등이 그 例이다. 人文社 發行의 「戰線詩集」은 當時 우리 詩壇을 代表하여 北支의 日本軍慰問使節로 다녀온 林學洙가 日本軍의 活躍相과 勇猛性을 그린 우리 나라 最初의 戰場文學¹⁸⁾이며, 最近까지 自己辨明에 汲汲했던 金龜濟의 戰爭文學詩集 「亞細亞詩集」은 辨明의 餘地없이 다음의 한 作品이 그의 變節을 代辨해 주고 있다. 日本의 軍歌인 「愛馬의 노래」를 우리 말로 潤色해서 翻案해 놓은듯한 그의 詩 「愛馬」를 拔萃 例舉해

17) Ibid., pp. 215 ~ 217.

18) 「人文評論」, 1939.10.1. 人文社發行 表紙裏面の 同詩集宣傳文에서

본다.

사랑하는 말아
말하건는 戰友야
네가 넘어도 勇敢하기 때문에
너의 상악한 心情이 슬프고
네가 넘어도 굳세기 때문에
너의 졸론 눈이 안타깝다.

(2 · 3 聯 10 行 略)

히나 대견한 愛馬야
너의 功績에 對하야는
神이 빛나는 勳章을 贈할것이다.
騎兵의 山賊告
너는 獅子와 같이 戰場을 馳驅한다.
砲列을 山上에 끌러 올리고
彈藥과 糧秣을 運搬하면서
黙黙히 다만 進軍하고 있을 뿐.

(5 · 6 · 7 聯 16 行 略)

사랑하는 無名의 戰士야
너의 窶간동을 투덕여 주면서
너의 졸론눈을 둘러다 보면
驍將의 눈물이 굳성대 온다.
그리고 너의 깊은 눈속에
나는 거룩한 거울을 본다.¹⁹⁾

自古로 戰爭文學의 作品이 없는 우리 나라였는지라 비록 남의 나라 싸움이기는 하였지만 自意

19) 「作品」1939.6.1. 作品編輯部發行 1号, PP.25 ~ 27.

은 他意든 그 戰爭에 말려 들지 않으면 안될 立場이었던 當時의 狀況에서는 戰爭文學이라는 特殊 장르가 어찌면 別 變化 없는 既存文學에 食傷이 된 우리 文人들에게는 하나의 매력적인 突破口가 되었는데도 몰랐다. 따라서 1939年 10月の 「人文評論」 創刊호에는 白鉄의 「戰場文學一考」라는, 前二者와는 전혀 다른 傾向의, 換言하면 中日戰爭을 背景으로 「野戰病院」「보리와 兵隊」等 問題作을 낸 日本의 新進 戰爭文學作家인 日比野士郷(火野葦平)의 上記 作品들을 批判한 內容의 글²⁰⁾ 외에도 이때부터는 各誌에 戰爭文學 그 自体가 完全한 한 장르를 形成한 것은 아니었지만 中日戰爭과 2次大戰을 이은 解放期까지는 어쩔 수 없이 取扱하지 않으면 안될 宿命的인 命題이었다.

어쨌든 日帝의 彈壓에 依해 우리의 文芸誌에 皇國臣民之誓詞가 掲載되고 玉의 티격인 한 두 作家들의 變節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拳臂의 우리의 文人들과 文芸誌들은 意識으로 日本을 忌避하면서 우리 것을 지켜 갈려고 努力하였으니 그 代表的인 一例로 「文章」誌등을 들 수가 있다.

② 「文章」誌의 抗日性

「文章」은 1939年 2月 1日에 創刊되어 1941年 通卷 25号(臨時号合 26号)로 幕을 내린 1940年代를 前後한 우리 나라의 代表的인 文芸誌이다. 當時의 狀況이 狀況이었느니만큼 雜誌를 經營 出版하기 爲해서 後期에 多少 親日的인 內容을 取扱하였다손 치더라도 이는 「文章」이 가지고 있는 原來의 精神과는 全然 無關한 것이었으며 또한 不可避한 事實로 보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

1941年, 유럽에서는 이미 나치스 獨逸에 依한 第2次世界大戰의 戰端이 끊어졌고, 이에 때 맞춘 日帝의 大戰突入을 爲한 斷未魔의 發惡은 우리 나라 全般에 未曾有의 毒牙를 휘둘러 댔으니 이른바 當時 몇개 남지 않은 우리 나라의 代表文芸誌였던 「文章」「人物評論」「新世界」를 併合하여 하나를 만들고 朝鮮語를 半分하고 日語를 半分하여 「皇道精神昂揚」에 積極 協力하라는 日帝 當局의 命令에 不服하고 다음과 같은 諷刺한 廣告를 마지막으로 그 幕을 스스로 내렸으니 可히 그 民族精氣를 斟酌하고도 남는다.

廣 告

本誌「文章」은 今般 國策에 順應하여 이 第三卷第四号로 廢刊합니다.

다만 單行本 出版만은 從前대로 繼續하오니 多름없이 愛護하시기 바라오며 「文章」의 先금이 남는분께는 5月 10日內로 返送해 드리겠습니다.

昭和十六年四月十五日

文章社²¹⁾

20) 「人文評論」 1939.10.1. 人文社刊 PP.46~51.

21) Ibid., 卷末에서

以上에서 미루어 봄에 「文章」誌의 廢刊은 全然 他意에 依한 것이며 當時의 어려운 條件下에서 우리의 良識있는 民族誌가 가질 수 있었던 最後의 手段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대로 「文章」誌 안에 全혀 親日的인 要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自意였던 他意였던 當時 澎湃했던 日本의 戰場文學을 紹介하는데 紙面을 割愛했고 林學洙와 같은 두명한 親日作家의 글이 이 「文章」誌에 散見된다는 點등이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視野를 넓혀 그 內容을 勘案할 때 우리는 「文章」誌 主幹者들의 日本忌避에 對한 機智에 感嘆을 禁할 수가 없게 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事實에 立脚해서이다.

同誌의 創刊号부터 中期까지의 共通의 日本의 人인 것은 오직 「戰線文學選」뿐이다. 單 三페이지를 割愛한 이 欄에서 普通 2~3名의 日本作家의 作品을 紹介하면서 去頭折尾 하고 本文도 아니고 즐거리도 아닌 것들을 散漫하게 紹介하고 있다. 同誌 1号에는 金真火의 「支那 事變 從軍圖展覽會를 보고」가 2페이지로 실려 있는 것이 日本에 對한 全禮遇(?)이고 2号부터는 例의 「戰線文學選」이 連載되는데 2号의 內容을 例示하면

火野葦平作 「휴과兵隊에서」	1.5 P
" 「담배와兵隊에서」	0.8 P
林芙美子作 「戰線」에서	0.7 P ²²⁾

程度로 그 龍大한 量의 小説의 즐거리를 1페이지 内外로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리고 만다.

그러나 同誌 第一卷 第六輯부터 八輯사이에는 林學洙의 「北支見聞錄」이 3회에 걸쳐 連載되면서 日本 大陸侵略軍의 勞苦와 榮譽를 長舌해 놓았는데 차라리 日本 그 自體의 文學이나 日本文人들의 글을 訳・転載하는에는 또 다른 面에서의 意義를 賦與할 수 있다손 치드라도 同族들에 依한 이러한 日帝讚揚의 글을 對할 때는 두고 두고 玉의 티인양 얼굴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同誌의 後期에 이르면 같은 戰場文學欄에 日人의 글이 記載되어 나오고²³⁾ 「文芸와 新體制」²⁴⁾ 「國民文學의 基礎」²⁵⁾ 등 日本人들의 글이 訳転載되어 나오지만 果然 이걸로써 「文章」誌의 親日性을 云謂할 수 있느냐에 對해서는 앞서 밝힌대로 이 後의 同誌의 自進廢刊을 勘案해 볼 때 自明한 答이 나오리라고 여긴다. 如何든 同誌는 日帝末期의 가장 어려웠던 時期에 檢閱・財政・原稿・用紙難등을 克服하면서 日帝의 民族傳統 및 文化抹殺政策에 對抗하여 民族傳統 乃至 文化擁護에 적지 않은 努力을 傾注한 것 만큼은 오늘날 아무도 否認할 수 없는 嚴然한 事實이라는 것

22) Ibid., PP.159 ~ 161.

23) 「文章」第二卷第七号(9月号) PP.123 ~ 128 「襄東作戰從軍記」大仏次郎

24) Ibid., 九号(11月号), PP.124 ~ 125 今日出海

25) Ibid., 十号(12月号), PP.83 ~ 86. 伊藤整

을 밝혀 두고자 한다.

③ 1941年以後

1941年은 第2次世界大戰이 勃發한 해다. 따라서 日帝의 우리나라에 對한 彈壓도 그 極에 達하여, 當時 国民學校 低学年에서 週에 1~2時間 가르쳤던 이른바 「朝鮮語」時間도 廢止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말을 전혀 使用하지도 못하게하고, 우리 文人들을 잡아 가두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發刊되는 文芸雜誌는 우리나라 文芸誌라기 보다는 日帝의 戰爭宣傳物로 달바꿈하게 되었다. 이에 전디다 못한 拳擊의 文人들은 붓을 쥐고 隱遁하여 地下로 들어 갔으며 文芸誌는 自進廢刊의 길을 択했다. 그러나 哀惜하게도 한두 文人들이 自意·他意間에 日帝에 協力하였으며, 오늘날 보아도 그것이 日本雜誌인지 우리 것인지조차 分間하기 어려운 文芸誌라기보다는 차라리 政治軍事誌같은 文芸誌가 이 期間에 誕生되었다. 春園 李光洙의 變節이 그 可아픈 例의 하나요 農民誌를 自勉하던 「東光」의 後期傾向 등이 다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한 두 作家나 文芸誌의 變節의 例로써 當時의 우리 文壇의 性向을 規定지을 수는 없다. 앞서 밝힌대로 良識있는 우리의 文人들은 이 期間에도 꾸준히 抗日의 一念下에서 表出化되지 않은 文芸創作을 繼續해 왔으며 日帝協力拒否, 朝鮮人學兵出征反對運動等 広範圍한 政治·社會運動까지 展開하였었다. 따라서 日帝末期의 極少數의 變節의 例는 그것이 다만 玉의 티일뿐 絶對多數의 日帝下 近代期の 우리 文人들의 玉같이 맑고 鉄石처럼 굳은 抗日精神과 民族文化守護精神에는 秋豪의 異議를 달 수 없음이 明明白白한 일이다.

結 論

우리 나라 近代期에 있어서의 日本文化의 影響을 時期的 및 內容的으로 集約해 보면 大概 다음 의 네가지 形態로 区分할 수 있다.

- (1) 1900年代: 形式의 收容, 即 唱歌 및 詩歌의 形態에 있어 우리 나라 固有의 民謠體에서 75 調 및 自由律이 收容되었다.
- (2) 1910年代: 重訳을 통한 西歌精神의 收容, 即 「少年」等誌에서 全히 日本 것은 度外視하면서 日本翻譯物을 통한 重訳物로서 西歌의인 政治 및 社會思想이 收容되었다.
- (3) 1920年代: 重訳을 통한 文芸思想의 收容 即 「泰西文芸新報」에 이어 20年代 初期의 많은 文芸誌들에서는 主로 仏蘭西와 獨逸 露西亞의 文芸思潮들이 日本書籍의 重訳 또는 重重訳을 통해 移入되었다. 이에 對한 우리 文壇內에서의 是非가 있었다.
- (4) 1930年代: 戰爭文學形態의 收容 即 當時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서는 極히 生疎했던 새로운 장르의 戰爭文學이 日本軍의 中國大陸侵略, 2次大戰 등으로 해서 自意든 他意든 間에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여기서 重要한 것은 當時의 不得已한 우리 나라 事情으로 形式上으로는 日本을 통한 西歐文明을 導入하였지만 그 過程에서 添加될 수 있는 日本的인 것 또는 日本化된 어떤 것도 排擊하면서 우리의 文人들은 險難한 우리 나라 近代化 물결을 헤쳐 왔다. 비록 大戰末期의 極惡狀況에서 한· 두가지의 變形은 있었을지언정 그것은 玉의 티일 뿐 우리 文人들의 拳皆는 꾸준한 抗日運動을 有形無形으로 벌여 왔다.

甲午更張을 前後한 우리 나라의 近代化 初期부터 1945年의 解放에 이르기까지 後人들의 想像을 超克한 彈壓과 逆境속에서 그 많은 文藝誌들이 停廢刊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本文에서 밝힌 程度의 日本的인 것의 収容外에는 어떠한 圧迫이나 懷柔에도 屈하지 않고 몇몇이 우리의 것을 찾고 지켰다는 것은 東西의 歷史上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훌륭한 精神으로, 오늘날 우리와는 微妙한 關係를 가졌던 日本語를 다시 우리 나라 青年學徒에게 가르쳐야 하는 立場에 있는, 또 그것을 배워야 하는 우리들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先人들의 抗日精神과 民族文化守護 精神을 배우고 익힌 後 日本의 言語文化에 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要 約

甲午更張을 起點으로 한 우리 나라의 近代化 作業은 日本을 分離해서 生覺할 수 없으며 西洋文物을 받아 들임에 있어서도 日本을 통해서 받아 들여졌다는 것에는 별다른 異論이 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 近代期의 文化形成過程에서 그 先導의 役割을 맡아 왔던 우리 文人들의 排日性과 民族文化守護精神은 오늘날 日本이라는 우리와는 不遇한 過去를 지녔던 나라의 言語를 다시 이 땅의 學生들에게 가르쳐야 할 立場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指標일 수 밖에 없다.

우리 나라 近代期에 發行되었던 主要文藝誌에 나타난 日本的인 것을 分析해 본 結果 外形的인 影響은 받은 바 있지만 內容面에서는 反日的 乃至는 排日性이 두텁하며 그로 因한 우리 文人들의 苦楚 또한 甚하였다.

形式的이나 近代文學形成過程에서 日本의 影響을 分檢해 보면 1900年을 前後한 唱歌 및 詩歌의 形式影響, 1910年代의 重訳을 통한 西歐的인 政治 및 社會思想의 収容, 1920年代 역시 主로 프랑스·독일·러시아등의 文藝思潮를 日本書籍을 통해서 二重·三重翻譯으로 우리 나라에 紹介되었다. 또한 1930年代 後半에 일어났던 中日戰爭과 1940年代 初盤에 일어났던 世界第2次 大戰은 그 때까지 우리 文壇에는 生疎한 分野였던 戰爭文學의 章을 열게했으며, 그에 따라 몇몇 文人들의 轉向이 있었지만 拳皆의 우리 文人과 文藝誌들은 혹은 붓을 꺾고 屈通하였으며, 自進廢刊 停刊등의 不遇를 겪게 되었다. 2次大戰當時인 1941년부터 45年사이에는 우리 文藝誌이면서도 우리의 것다운 面貌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기구한 運命의 文藝誌들이 이 땅의 文壇의 全部이기

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狀況은 不可抗力의인 極限의 狀況에서 있었던 極微한 狀況에 지나지 않았으며 日帝의 侵略期로 代應될 수 있는 우리의 近代期동안에 우리 나라 先輩文人들은 西歐文明을 우리 나라에 導入하는에 있어 日本이라는 中間媒体를 通하면서도 흔히 묻어 들어오기 쉬운 日本的인 것, 또는 日本化된 西歐文明의 收容을 拒否하였으며 특히 日本文学自體의 收容에는 積極的인 排他性을 나타내었다.

이에 오늘날 우리와는 微妙한 關係를 가졌던 日本의 言語를 다시 우리 나라 青年學徒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立場의, 또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될 立場의 우리로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先人들의 抗日精神과 民族文化守護精神을 배우고 익힌 후 日本의 言語와 文化에 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Summary —

On the Exclusion of Japanese Literary Works from Korean Modern Magazines

Ob, Young Jin

The work for modernization of Korea starting from Kabo Reforms (1894) can not be thought of apart from Japan. No one will object to the fact that western civilization was introduced into our country through Japan. The anti-Japanese thought and national identity of our writers, who had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formation of modern culture, cannot but be taken as a striking specimen of their minds by those who are forced to teach the Japanese language reminding us of unpleasant past.

The analysis of the things Japanese in the main literary magazines during the period of Korean modernization shows that Japanese literature had a superficial effect on us but the contents was characteristic of anti-Japanese sentiments. Also writers had to suffer hard ships from expressing those sentiments.

The analysis of the effect which Japan had superficially on us shows that the poems and songs affected us before or after 1900, western policies and social thoughts were introduced to us by secondhand translation in 1910's, and the literary thoughts of France, Germany and Russia were introduced in retranslation through Japanese book. War literature unfamiliar with Koreans was introduced to us by the Chinese-Japanese War in the latter half of 1930's and World War II in the opening part of 1940's. According to that situation, most of Korean writers were converted to war literature, but some of them gave up writing and retired from the literary field. There were some magazines which ceased publication and were in suspension on their own initiative. All literary activities for all practical purposes came to an end at the close of 1941, when Japan plunged into the Pacific War. To our great sorrow for 45 years since the things Korean had not been able to be found in our literary magazines.

But those was unavoidable little matters in an extreme situation. Our seniors, writers, tried not only to refuse to introduce Japanized western civilization in the course of importing western civilization through Japan, but also to exclude the very Japanese literature more positively. Today, our situations force us to teach my young students the language of Japan which was unpleasantly connected with Korea. But, first of all, we must come in contact with th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fter we have learned and accustomed ourselves to anti-Japanese minds and the spirit for national culture which our ancestors have had.